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20일 (음력 11월 3일) 수요일

청년고용 '암울' ...신성장동력 발굴 시급하다

광주·전남지역의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역경제 성장세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과장 박지섭 조사역 문세미)은 19일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부진 현상은 성장세 둔화와 함께 노동시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지역 청년고용 진단
청년 고용률 타 지역比 낮고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 높아
"경제 성장세 확대·노동시장 이중구조·미스매치 해소"

의 구조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쓰레기 연료 사용 저지...나주시민 청와대 앞 집회 '쓰레기 연료' 반입·사용에 집단 반발한 나주시민 300여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주민수용성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사팀이 16개 광역시·도별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경제성장률, 비정규직 및 암장의 일자리 비중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올해 3분기 광주와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2%, 24.2%로 광역시(41.1%)와 광역도(41.4%)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3분기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41.4%, 37.4%로 광역시(45.4%), 광역도(44.8%) 평균보다 낮았다.

금융위기 이후 7년간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그 이전 7년에 비해 2.2%포인트 줄어들어 광역도 평균(-0.2%포인트)보다 더 크게 감소했고 전남의 감소 폭도 -1.8%로 광역도 평균(-1.7%포인트)을 상회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암장의 일자리 수는 이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조사팀은 이 같은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광주·전남의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적자본 축적 저해, 결혼 및 출산율 저하 등 지역 성장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역내 소비를 진작하면서 암장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취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경영자, 노동계, 학계 등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팀은 "일·학습 병행제로 교육 내용과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기술간 불일치를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매칭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치?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2018년 지방선거 성균인상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선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성균관대 동문들은 "차라 일곱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반대 서명에 들어갔다."

황교안 동문의 지방선거 성균인선정에 반대하는 성균인 일동은 17일 연서명 입장문을 내고 "우리들은 총동창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사를 표명하며 총동창회의 결정은 대다수 성균인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동문은 1700만 촛불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정문희 문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봉우·자료사진=뉴시스



장흥 대덕지보협, 저소득층 온정 베풀어

전남사회복지모금회 6백만원 긴급생계비·의료비·집수리 등 지원

장흥군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로부터 지원받은 2017년 기획 민관협력지원 공모사업비 6백만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긴급구호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급하고 소규모집수리사업을 시행했다.

대덕협의체는 아픈거나 질환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67구를 대상으로 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부부 및 아동 27구에게는 지붕과 화장실을 수리해주는 등 복지사각지대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

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김형철·이재천)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 할 기회를 제공해 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되어 지역 곳곳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달 20



일부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장흥=김종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